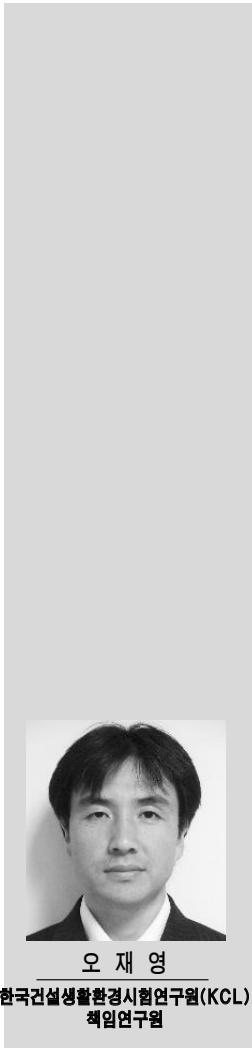




# 포장재 산업 국내외 환경규제 동향 및 대응 전략

## Packaging Industry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오재영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책임연구원

오늘날 선사시대의 대표적 유적지로 거론되는 ‘패총(貝塚, 조개무덤)’을 현대적 시각에서 살펴본다면 이 유적은 아마 당시에는 오늘날의 폐기물 처리장에 해당되는 목적으로 조성되었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유추하고 있다.

실제 산처럼 쌓인 조개더미 속에서는 당시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유물들이 함께 출토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토기류의 조각들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던 용기인 토기류는 오늘날 패키징의 가장 원초적 형태로 인류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동시대를 공유해온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폐기물에 불과한 고대 패키징(선사 토기류)이 유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이유는 동시대의 생활과 기술이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고도의 기술이 발전된 현대사회에서도 다르지 않다. 즉, 오늘날에도 경제 및 사회적 트렌드, 생활방식의 변화 등에 따라 패키징에 적용되는 기술 및 형태도 다양하게 적용 및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에 등록된 세대수 중 2인 이하로 구성된 세대가 약 42% 달한다는 통계 및 보도 자료는 패키징 산업에서 소형 패키징의 증가를 요구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캠핑의 인기는 즉석 식품과 같이 보관, 사용, 폐기 등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편리성이 확보된 패키징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패키징의 특성상 일상생활과의 밀접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적 니즈와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패키징의 수요증가는 고스란히 포장폐기물의 폭증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중 포장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량기준으로 32%, 부피기준으로는 50%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렇다면 수 천년이 지난 후 이 패키징 폐기물들이 앞서 언급한 조개 무덤에서의 토기류와 같이 귀중한 유물로 취급받을 수 있을까?

정확한 답은 수천 년이 지나서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요소 중 하나는 오늘날의 폐기물 폭증 또는 포화의 시대에 폐기물 감량을 위한 노력과 환경을 배려하는 기술이 패키징 재료에 반영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실제로 글로벌 환경문제를 인식한 세계 여러 국가들을 중심으로 패키징과 관련하여 환경을 배려하기 위한 법안 및 기술 개발들이 이미 진행되어 왔고,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기술적, 제도적 개선을 위한 연구는 물론 친환경 패키징 국제표준화 작업도 이루어져 왔다.

국제표준화기구(ISO) 패키징분야 기술위원회(TC122) 친환경 패키징 분과(SC4)에서는 친환경 패키징을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니즈를 충족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공헌을 위해 효과적인 패키징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친환경 패키징의 실현 방안으로 패키징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효율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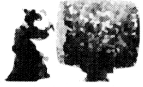
인 관리를 위하여 3R, 즉 Reduction(원천감량), Reuse(재사용), Recycle(재활용)의 자원순환형 관리체계 수립을 기본적 정책으로 삼고 있다.

각 국에서는 3R에 근거한 환경정책을 통해 국가별 상황에 맞게 세부적인 지침이나 법령 등의 시행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을 통해 3R의 자원순환 정책을 이행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는 '패키징 및 패키징 폐기물에 대한 EU지침(EU Directive(94/62/EC)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을 통해 사용된 재질에 관계없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패키징 및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 등의 모든 단계에서 사용·배출되는 모든 패키징 폐기물에 대해 의무(mandatory)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이 지침에 규정된 필수 요구사항(Essential Requirements)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패키징을 시장에 유통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유통 공급망의 최상부 조직인 Wal-Mart를 중심으로 패키징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채점표(Scorecard)를 도입함으로써 시장 주도형 자율적 환경규제 역할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은 환경보호를 위해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는 화학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법령(환경부 법령



451)을 통해 산화 및 생분해 플라스틱백 등  
록을 위한 제조자 및 공급자 의무사항을 규  
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는 “환경”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거래의 대상  
으로서 시장의 일부를 구성함에 따라 패키징  
산업 역시 다변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이러한 환경 트렌드를 간과할 수 없으며, 패  
키징 산업의 생존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해, 패키징 산업 역시 시장이라는  
울타리 안에 존재하므로 이러한 시장의 요구  
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에 패키징 산업은  
'패키징과 환경'의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이러한 경향으로 말미암아 패키징  
산업에서는 패키징의 유니 소재화 기술, 생  
분해성 패키징 소재 개발, 재활용이 용이한  
패키징 디자인 등 기능성 패키징 개발을 통  
한 다양한 환경배려 기술의 도입이 시도되고  
정착화되고 있다.

결국 국내 패키징 산업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환경규제의 궁극적인 목적  
인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의 의미를 명확  
히 이해하고, 이러한 개념이 패키징 소재, 디  
자인, 폐기처리 등의 패키징 요소 기술로 반  
영될 수 있도록 환경배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및 기술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국내 환경정책 또한 일관성  
을 유지하고 패키징을 사용하는 사용자 및

소비자의 환경배려 의식과 관심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 지역사회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지  
가 생활주거지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기를 원  
하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폐기물은  
독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향해 빠른 속도  
로 돌진하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적어도 환경 규제에 관련한 어떠한 경제적  
보상 논리로 환경문제를 수용하여 간과하기  
에는 사회적 공감이나 필요충분조건을 논하  
기 어려운 명제임을 인식하고, 환경배려의  
적극적 실천과 생활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독	자	칼	럼	모	집
---	---	---	---	---	---

월간 포장계는 독자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  
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의 독자칼럼을 모집  
합니다.  
어떠한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포장인의 독설을 펼칠 지면을 할애하니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필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월간 포장계 편집실  
TEL :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